



라면 조리까지
공항 라운지
K-푸드 쇼룸으로
L2

metro[®]

Life

최태원
한·멕시코
협력 확대
L4



“시민 일상서 알린 암 검진...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잡길”



새벽을 여는 사람들

국민건강보험 오인애 팀장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에 발견하면 상대생존율은 92%에 달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된 뒤 발견하면 27.8%까지 떨어진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의 건강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가을의 문턱에서, 오인애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 팀장은 ‘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5년간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9.5%로 가장 적었다. 이후 2021년 56.6%, 2022년 58.2%, 2023년 59.8%, 2024년 60.2%로 꾸준히 늘어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 팀장은 “암검진 수검률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다”며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질병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령층 검진 사각지대

수검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다.

연령별로 보면 2024년 기준 40대의 암검진 수검률은 74.1%로 가장 높았던 반면, 80대 이상은 32.3%로 가장 낮았다. 고령층이 검진을 미루는 데에는 질병 발견에 대한 두려움과 거동 불편, 동행자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병원을 자주 찾는 만큼 별도의 검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검진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 팀장은 “어르신들 중에는 ‘이 나이에 암을 알아서 무었하겠느냐’, ‘차리리 모르는게 낫다’, ‘자식한테 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며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검진을 통해 질병을 빨리 발견하면 치료에 드는 비용과 신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 “20·30대, 젊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 팀장은 20대 이상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 대상 연령은 2016년부터 기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젊은 여성층의 검진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검진 연령이 낮아진 배경에는 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의 빠른 증가세가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40·50대 자궁경부암 환자가 6% 증가한 데 비해 20·30대 환자는 25% 늘었다.

오 팀장은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적용해 왔



암 전이 되기 전 발견시 생존율 92%
정기 건강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해

80대 검진 수검률 32%로 가장 낮아
빠른 발견이 비용·고통 줄일 수 있어

20·30대 자궁경부암 발병 증가세
젊은 연령층도 정기적 검진 받아야
발병 비중 높은 유방암도 검진 필수

우유팩·약봉투 활용해 암검진 홍보
야구장 초대형 스크린 활용하기도
암검진 제도, 더 친숙하게 인식되길

다”며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인 데다 젊은 연령층은 세포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20·30대 여성들도 검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다. 오 팀장은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방 모형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직접 모형을 만져보며 멍울이 잡히는 느낌이나 피부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 팀장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로만 듣다가 직접 체험해보니 검진의 필요성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방암은 40·50대 여성에서 발병 비중이 높은 만큼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40·50대는 사회와 가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 이때 암이 발생하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방의 멍울이나 피부 변화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



엇보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일상 속으로 들어간 암검진

오 팀장은 업무를 맡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 암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

오 팀장은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내 스크린을 통해 암검진의 중요성을 알렸고, 서울시약사회와도 협력해 약국 내 홍보 안내물을 설치했다”며 “특히 여약사들이 약국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의 필요성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홍보 접점을 더 넓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협업해 저지방 우유팩에 국가건강검진 안내 문구를 넣고, 약 88만 가정에 검진 정보를 알렸다. 또 프로야구 시즌인 지난 5월부터는 고척돔 초대형 스크린을 활용해 경기장을 찾은 수십만명의 관중에게 검진의 중요

1 오인애 국민건강보험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 팀장이 암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국가암검진 참여 확대를 독려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3 우유팩에 국가암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문구가 담겨 있다. /국민건강보험

성을 알리고 있다.

현재는 서울시약사회, 조은제이엔피와 함께 조제약 봉투를 활용한 국가 암검진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매체를 활용해 검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오 팀장은 내년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돌아온 답은 거창하지 않았다.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주변 사람들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 바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을 넘어 결국 모두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건강은 특별한 때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 검진 제도가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암 검진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12년 만에 정상 탈환...남동헌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 韓 배드민턴 순항...안세영·남자 복식 4강 진출
/사진 뉴시스

▲ 韓 펜싱, 단체전 전 종목 메달 확보...女 사브르·男 에페, 준결승 진출

▲ 강준이,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사상 첫 우승

▲ 김하성, 2년 만에 3루타 ‘왕’...1안타 1볼넷 2득점 활약

▲ 조규성, 우루과이전 앞두고 소집 해제...‘회복 집중’